

【 종합 】

수도권 집중 반대 서명 1천만명 돌파

지역균형발전협, 석달간 1,119만명 서명 발표

‘균형발전’ 촉구 길거리 투쟁 선포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두달여 만에 1천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지난 7일 하순부터 9일 말까지 전국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모두 1천 119만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동시에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의장은 경북도청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비수도권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현재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

고 정치정점화할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천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그만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4%와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하는 등 사회의 모든 부류가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중단하고,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라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협의회는 이날 하순 ‘전국 순회 자건거투쟁단’을 구성해 주요 도시를 돌면서 균형발전 촉구 여론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같은 시기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역 등에서 길거리 투쟁을 퍼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별 서명자 수를 보면 광주주는 56만3천명(목표의 101%), 전남 76만9천명(목표의 105%), 경북도 155만명, 부산시 143만명, 경남도 126만명, 대구시 105만명 등으로 집계됐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복원 경북공 건청공 개방

18일 오전 경북공 내 복원이 완료된 건청공 개방 행사에서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시해되기 전 까지 머물렀던 곤녕합과 육호루를 내빈들이 둘러보고 있다. 건청공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비극적 장소로 일제에 의해 훼손·철거된 곳이다. /연합뉴스

“서남해안 도로(부산~인천)는 누더기”

전체 구간 중 16%가 2년동안 착공도 안해

국회 건교위 국정서 지적

국회 77호선(부산~인천) 서남해안 일주도로 구간 중 16.4%가 지난 2년 동안 공사 미시행 구간으로 남아 있는 등 누더기 도로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건교위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서남해안 일주도로 총 연장 644km 중 16.4%인 106km가 미시행 구간으로 남아있다”며 “이는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구간에서는 기존 도로를 넓히는 확장공사

만 이뤄졌다”며 “그것도 지난 1년간 사업진척도가 12.5%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남해안 일주도로는 특히 노선 상에 있는 교량의 78.4%가 건설되지 않고 지도상에 선만 그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남해안 일주도로 노선 성 전체 교량은 26곳 31.6km. 이중 3곳 1.9km(6.0%)만 개통 후 사용 중이며 건설 공사 중인 교량은 5곳 4.9km(15.5%)다. 하지만 18곳의 24.8km 구간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지도에만 있는 다리도 남아 낙후 지역 개발과 전남지역 관광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권자 5명 50배 과태료

17대 대선과 관련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유권자 5명에게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열린 포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5명에게 166만6천650원씩 총 833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 8월 14일 이들의 위반 행위를 적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지난 15일 경찰이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오에 따라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정후식기자 who@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의장 이낙연 의원

“균형발전은 국민의 뜻... 받아 들여야”

“불과 두달 동안 1천119만 명이 이르는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집중화를 반대하는 서명에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원하는 거대한 민심이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시정을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영광·함평·사천)은 18일 “전국에서 취합된 서명 서류는 조만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물론 각 정당에도 전달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하순 자건거



투쟁단을 발족, 전국 순회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날 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촉구 1천만 국민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르는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임기 내에 2단계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문광부 ‘문화도시포럼’ 발족

문화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비상설 자문기구로 ‘문화도시포럼’을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포럼은 성균관대 교수인 김광식 회장을 비롯해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도시, 문화산업, 문화교류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문화도시포럼은 19일 오전 11시 프레젠테이션 19층 매화홀에서 ‘제1차 문화도시포럼’을 열었다. /연합뉴스

전남도 ‘2차 조선타운 투자협약’

신안·고흥지역 9개 조선업체 추가 유치

전남도와 신안·고흥군은 18일 도청에서 박종영 전남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박병중 흥군수, 조선업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남(신안·고흥)조선타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6월 씨엔중공업 등 7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과 ‘제1차 전남조선타운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4개월만에 9개 조선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해 이뤄진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조선타운 중신안 조선타운은 조선소 부지(324만㎡)에는 대한조선(108만㎡), 진세조선(89만㎡), 씨엔중공업(64만㎡), 현대상호중공업(63만㎡) 등 4개 중·대형 조선업체가 1조 9천919억원을 투

자하게 된다. 또, 흥 조선타운의 조선소 부지(73만㎡)에도 세광원(33만㎡), 동방조선(33만㎡), 일흥조선(7만㎡) 등 3개 중·소형 조선업체가 총 3천여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안·고흥 양 조선타운의 조선부지 면적은 100% 공급된 상태이며, 전남조선타운에 입주하는 조선기업들의 수주 잔량은 현재 189억 8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9개 조선 관련 기업이 입주(투자)가 결정됨으로써 전남조선타운 건설 및 투자사업의 규모도 당초 1천775만㎡의 부지가 1천 874만㎡으로, 투자사업비도 당초 3조 1천여원에서 4조 9천여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

정운재 前비서관 구속

정운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기소)씨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8일 정 전 비서관을 알선수재와 정지자 금품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구속했다.

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부분 소멸하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 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법치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계 이후 48일 만에 영장의 신세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근(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등 두 차례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우식 부총리 來光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19일 광주를 방문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리는 용봉포럼에서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오후 7시 광주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금요일과 과학터치’ 첫 번째 강연에 참석할 계획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이젠 ‘끝났다’를 하는 군

Advertisement for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Reception Guide)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SONY의 모든 것' (All of Sony) with website and phone number.

Advertisement fo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 (Jodaebuk High School Alumni Sports Meeting) with dates and location.

Advertisement for '여수시장' (Yeosu Market) with a table listing various good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전라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Jeollanamdo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with details on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금당부동산' (Geumdan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금매' (Gold Buy) with details on buying gold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Construction License Transfer/Buy/Sell) with details on services.

Advertisement for '대양광 발전소 및 연수원 예정부지' (Daeyang Power Plant and Training Center Site) with details on land and power.